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5. 1.(목) 12:00
(지 면) 2025. 5. 2.(금) 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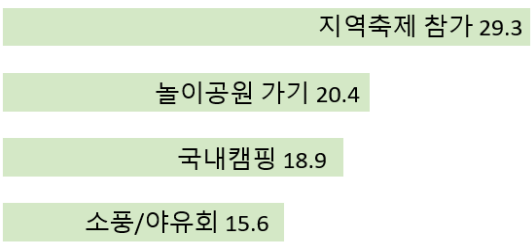
설레는 봄나들이, 안전에 주의하세요!

- 축제·행사장, 놀이공원, 캠핑장으로 나들이 시 안전에 특히 유의

□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 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.

□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, 최근 1년 동안 국민들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▲지역축제 참가(29.3%) ▲놀이공원 가기(20.4%) ▲국내캠핑(18.9%) ▲소풍·야유회(15.6%)가 많았다.

<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(관광)활동 유형(복수응답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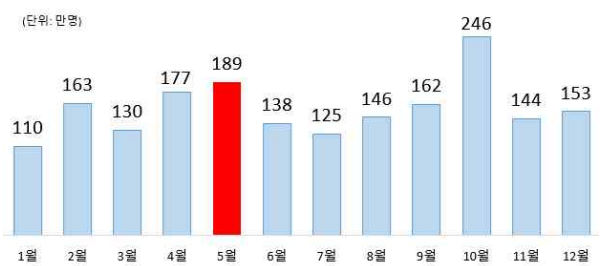
[출처: 국민여가활동조사 ('23.8.1. ~ '24.7.31.)]

○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되어 있으며, 이 중 5월(192개)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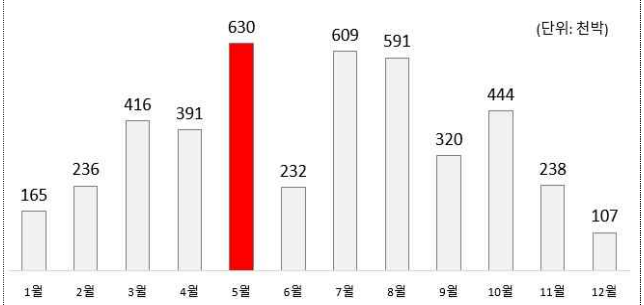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5월은 놀이공원('23년, 189만 명)을 찾거나,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('23년, 630천 박*)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,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.

* 표본조사에 의한 전국민 추정치

< 주요 놀이공원 입장객 현황 >



< 월별 캠핑(야영) 이용 총량 >



[출처: 캠핑이용자 실태조사 (2023, 한국관광공사) 및 국민여행조사 (2023, 문화체육관광부)]

□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.

< 축제 및 행사장 등 >

○ 축제 · 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,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.

○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,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.

○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,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.

○ 많은 사람이 모이고 복잡한 장소의 경우, 어린이와 노약자는 항상 보호자와 함께 움직인다.

< 놀이공원 >

○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대기하면서 안전선 밖으로 넘어가거나, 안전 울타리 밖으로 신체를 내밀지 않는다.

○ 놀이기구마다 정해져 있는 제한사항(키, 나이 등)을 반드시 지키고,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꼼꼼히 살핀다.

○ 놀이기구 탑승 중에는 일어서거나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등 돌발 행동을 하지 않고, 놀이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까지 안전장치를 임의로 풀지 않는다.

< 캠핑 >

○ 전기연장선은 과열되지 않도록 전선을 끝까지 풀어 사용하고, 플러그와 콘센트가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○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, 과열 위험이 있는 과대 불판·냄비는 사용하지 않는다.

○ 바비큐나 모닥불 놀이 시에는 반드시 화로를 사용하고, 사용 후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한다.

○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. 잠을 잘 때에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한다.

□ 아울러, 차량을 운행할 경우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, 평소보다 더운 날씨에는 식중독에 주의하도록 한다.

□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“가정의 달 5월을 맞아, 무엇보다도 안전에 유의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봄나들이를 즐기시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	책임자	과 장	지만석 (044-20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한경심 (044-205-450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